

관광휴양·자족도시 '담양'…2020년까지 4476억 투입

국토부 개발촉진지구 지정…관광개발·문화복합단지 조성
오토캠핑장·예술인촌 조성, 첨단단지 진입도로 확장 등

■ 담양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구분	행정구역 면적(km ²)	개발촉진지구 편입현황		대상사업
		행정구역	면적(km ²)	
담양군	455.05	1개읍 4개면 29개리	37.68	총 13개 사업지구
담양읍	29.52	가산리 등 17개리	17.08	대나무 박람회 조성사업 등 10개
창평면	33.80	삼천리, 창평리	0.16	창평 슬로시티 주차장 조성사업
금성면	37.31	금성리 등 6개	14.95	대나무 생태공원 조성 등 2개
월산면	49.63	화방리, 중월리	1.33	첨단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확장
수복면	29.06	두정리, 주평리	4.16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그외	275.73	-	-	-

담양이 주민 소득 증대와 환경 개선 등을 위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2020년까지 관광특화사업,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 등에 4400억 원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충남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일자로 담양군 일대 37.68 km²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표 참조〉 담양군이 신청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승인한 것이다.

개발촉진지구는 낙후된 지역에 소득 기반 조성, 생활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벌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곳이다.

개발계획에 따르면 담양군에서는 앞

으로 대나무와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 휴양사업', 첨단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생활환경 정비사업', 일반산업단지를 만드는 '지역특화사업', 진입도로 확장과 주차장 조성 등 '기반시설사업'이 추진된다.

총 13개 사업에 2020년까지 국비 831억 원, 지방비 415억 원, 민간자본 3230억 원 등 4476억 원이 투입된다.

관광특화사업에는 3개 분야에 1896억 원이 투입된다. 우선 내년에 담양읍 일원에서 열리는 '담양 세계 대나무박람회'를 위한 주제관·전시관·체험관 조성 사업이 추진된다. 지역 명소인 죽녹원과 관방재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등은

시설을 확충하거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도 별이다. 또 담양읍 운교리 일원에 동화마을과 물레방아마을을 조성하고 경관작물 재배지 및 한옥펜션지구를 만든다.

금성면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금성산성과 대나무숲에는 오토 캠핑장과 리조트, 예술인촌 등이 조성된다.

또 1410억 원을 들여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수복면과 수복면 경계에 주거·업무·교육·의료·상업 기능이 융합된 농촌형 자족도시인 첨단문화복합단지를 만들기로 했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798억 원을 투자해 담양읍과 금성면 경계에 일반산단을

지어 고부가가치 및 친환경 미래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기반 육성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국토부는 이처럼 다양한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대나무생태공원·일반산단·첨단문화복합단지의 진입도로 확장, 담양 읍내 관광지 연계도로 확장 등 8개 사업에 37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담양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친환경 생태자연을 활용한 담양군의 관광휴양산업이 발전하고 산업·생활기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5·18 시계탑 34년만에 제자리로

광주시, 1억 원 들여 옛 도청 분수대앞 이달말까지 이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옛 전남도청 앞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군부에 의해 농성동으로 옮겨진 시계탑이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됐다.

지난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들여 5·18 상징 시계탑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광장(옛 전남도청)으로 옮긴다.

시는 1일부터 광주시 동구 아시아문화전당 내 민주광장에서 시계탑 터 뒤기 작업 등 이전·복원 공사를 시작한다.

시는 5·18 기념사업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시계탑에서 종소리가 울릴 수 있게 확성기 장치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일 오후 5시 18분이 되면 광주민주화운동의 상징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게 된다.

시는 5월 단체와 시민들의 선호도 조사를 마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시계탑 종소리의 형태로 편곡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시계탑 복원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의 종소리 텁새로 광주민주화운동이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5·18 상징 시계탑은 지난 1971년 청년회의소 전국대회 광주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일본 청년회의소 측이 선물해 옛 전남도청 앞에 세워졌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5·18을 상징한다는 이유로 군부에 의해 현 광주 서구 농성광장으로 옮겨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종이 접고 제기 차고…한국문화 배우며 “하하·호호…”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봉사

어린이 100여명 미니 운동회

인근 마을 방역활동 진행

의류 200점·학용품 등 전달

30도가 넘는 맹볕 아래도 아랑곳 않고 얼굴이 검게 그을린 어린이들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줄을 길게 늘어서 대기 시간만 30여분이 넘지만, 광주에서 온 의사 선생님들의 진료를 받으려는 주민들의 표정도 밝았던 편했다.

지난 29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차량으로 2시간 가량 떨어진 캄퐁스푸주(暹粒) 트라파임 마을에 문을 연 '캄보디아 광주진료소'는 이날 하루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은 멀리 대한민국 광주에서 온 각계 각층의 리더들로 구성된 제2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원우(이하 원우)들이 각별히 열광하는 맹벌에서 구슬땀을 흘려가며 이곳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물한 하루였다.

진료소 앞 마당 한켠에서는 김숙희 광주 삼정초등학교장과 정성숙 광주 양동초등학교장, 최봉훈 광주 애플비유치원 원장 등 교육계 인사들과 강현희 비봉건설 대표가 100여명의 캄보디아 초등학생들을 위한 미술 교육 프로그램 및 한국 전통 놀이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원우들이 한국에서 가져 간 비닐 우산에 현지 아이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 넣는 프로그램과 종이접기 등의 미술 교육체



지난 29일 제2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원우들과 현지 아이들이 캄보디아 캄퐁스푸주 광주진료소 마당에서 함께 접은 종이 비행기를 날리며 환호하고 있다.

/캄보디아=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힘이 이뤄졌고, 이어 한국 전통 놀이문화의 하나인 제기차기를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미당 한쪽에서는 정명철 광주간축사 협회 부회장과 장효순 한국경제조사연구소장, 구귀남 진성물산 대표, 최성규 천지환경 대표이사 등이 또 다른 어린이

100여명을 칭백팀으로 나눠 동전 옮기기와 수저로 탁구공 옮기기 릴레이 게임을 벌이는 등 '미니 운동회'가 펼쳐졌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5분만 서 있어도

등과 이마에 땀줄기가 맺히는 악조건이 있지만, 원우들은 2시간여 동안 많은 아

이들과 함께 하나돼 웃음과 행복 기득한 운동회와 미술 수업시간을 만들어냈다.

이영민 문화공방 DKB대표는 나홀로 현지 어린이들의 시진을 찍어 즉석에서

인화를 해주는 서비스를 펼쳐 아이들에게 인기를 독차지 하기도 했다.

진료소 내부에서는 심상돈 동아병원 정

형외과 원장과 광주진료소 초대 소장인 서정성 아이안과 원장이 이날 하루 18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심상돈 원장은 "광주진료소가 캄보디아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는 있지만, 아직 간단한 수술장비 등의 의료장비가 부

족한 열악한 환경이어서 심각한 환자들의 경우 제대로 진료를 하지 못한 게 아쉬웠다"고 말했다.

인근 마을에서는 정상재 초석건축사 대표와 정치관 지에이건설 대표 등이 방역활동을 진행했다. 오전 내내 제대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 방역기와 맹벌 아래에서 씨름 끝에 결국 기계 작동에 성공해 무사히 마을 방역활동을 마쳤다.

원우들은 또 의류 200여점과 크레파스·스케치북 등 학용품 등을 현지 어린이들과 주민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캄보디아=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전총 안과 병원 운영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드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 가능
백내장 +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6/7㈯
라식센터

4/5㈰
수술
센터

2/3㈯
외래진료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 운암동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1인당 한도 최고 28억 원까지 가능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연말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임대보증금대출

정부정책자금대출

신용대출, 상가대출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김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